



철쭉 만개 붉은 캠퍼스 시민들이 11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동강대학교 운동장에서 만개한 철쭉을 구경하며 산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 택시 기본요금 1000원 ↑ 4300원 가닥

광주시 '월요대화' 토론 의견 수렴 물가위 심의 거쳐 이르면 7월 적용

광주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된 4300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광주시는 지난 10일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원탁토론 방식의 '25번째 월요대화'를 열고 택시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 월요대화에서 참석자들은 조별 토론을 통해 기본요금 4300원 인상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는 이날 기본요금 4300원 인상안과 기본요금 4000원에 거리·시간 요금 조정안(병산제), 기타 자유 의견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토론회 결과를 택시요금 인상안 종합 의견으로 반영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다음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6월 중 고시돼 이르면 7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광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이며 거리요금(100원) 134m, 시간요금(100원) 32초, 심야할증 24-04시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이 채택 의견을 모은 4300원 인상안은 기본요금이 1000원이 인상되는 대신 거리요금(100원) 134m, 시간요금(100원) 32초, 심야할증 24-04시 등은 현재와 동일하다. 기본요금 4000원 인상안은 거리요금(100원) 126m, 시간요금(100원) 30초, 심야할증 23-04시 등에 변동이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교육청 '2024 고입 일반고 배정 공청회'

13일 광주교육연구정보원서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부터 바뀌는 '2024 고입 편준화 일반고 배정방식'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광주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13일 오후 7시에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소개된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상인 2024 고교 입학전형은 내년부터 일부 바뀐다. 기존 배정방식에 학생 거주지와 배정 학교간 통학 거리가 추가로 고려된다. 배정가능 고교 가운데 후지원 선택 학교수가 6개에서 7~8개로 늘었다. 선지원 2개교는 기존과 같다. 시교육청은 여고·특정학교 기피 현상, 광산구 고교 과밀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배정방식 개

선추진협의회를 꾸려 후지원 학교 선택 폭을 넓혔다. 실제 광산구의 경우 중학교는 26개인데 고교는 11개교로 크게 부족하다. 이에 따라 올해 광산구 중학생 950여명이 북구와 서구지역 고교에 배정됐다. 일부 여고는 여학생들이 내신 성적 관리 차원에서 남학교를 선호한 탓에 학급을 감축하기도 했다. 외부 평판이 좋지 않은 고교는 무더기 미달 사태를 겪었다. 시교육청은 의견수렴을 위해 광주 시민, 중3 학부모와 교원 등에게 공론의 장을 열었다. 고교 선지원·후지원 비율, 임의배정(강제배정) 방식 등을 포함한 편준화 일반고 배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장 설문조사도 진행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갑질 자가진단시스템' 도입

반말·사적 심부름 등 10가지 유형

전남교육청이 직장 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갑질 자가진단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직장 상사에 의한 갑질 예방을 위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해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갑질 자가진단시스템은 간부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 10가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업무 지시를 할 때 모욕적인 언행', '다른 직원 앞에서 질책', '공식적인 자리에서 반말 여부', '사적 심부름', '업무시간 외 지시', '회식·야외활동 참여 강요', '연차·병가 승인 거부', '사적인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등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 남구 사직동에 빈집 매입 개조 '살롱드 사직' 조성

광주 남구가 사직동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살롱드 사직' 공간을 구성한다. 최대 100년까지 편지를 보관·발송하는 '시간우체국' 인근에 조성되는 '살롱드 사직'은 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된 프로젝트다. 빈집을 매입해 개조한 살롱드 사직은 아날로그 사진관과 수장고·기념품 판매장, 청년살롱, 녹색상회, 갤러리 살롱 등 5개 건물로 구성돼 있다. 아날로그 사진관은 레트로 감성으로 꾸며진 공

간으로 근산의 '초원사진관'을 모티브로 한다. 시간우체국 바로 옆에 있으며 사진 촬영과 영상 제작, 인쇄가 가능해 편지 전송시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을 함께 보낼 수 있다. 수장고 및 기념품 판매장은 시간우체국 편지를 보관하고 시간우체국 관련 굿즈를 판매한다. 청년살롱은 한옥 건물을 개조해 공유 사무실, 워크숍 장소 등으로 운영하며 대여 서비스도 한다. /김대진 기자 kdi@kwangju.co.kr

2층 이상 29곳 중 승강기 달랑 4곳 장애인에 너무 높은 행정센터 문턱

광주·전남 30곳 접근성 모니터링 화장실 사용 가능한 곳은 3곳뿐 대부분 경사로도 없어 진입 어려워 행정업무·주민 프로그램 이용 소외

광주·전남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주민 민원업무의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행정복지센터'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에는 둔감하거나 아예 도외시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광주·전남지역 중증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자립생활 지원하는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한달여 앞두고 지난달(3월 10일~3월 20일) 실시한 '광주·전남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6명의 장애인 권익옹호활동가가 직접 광주(20곳)와 전남(10곳) 등 30곳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전동휠체어를 타고 센터 내 시설을 살폈다. 조사 결과 2층 이상에 위치한 센터는 29곳으로 이 가운데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은 4곳(13%)밖에 되지 않았다. 승강기가 없는 대다수 센터는 경사로를 통해 이동하거나 경사로조차 없는 곳을 직원들 호출해야 한다.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23%

(7곳)에 달했다. 그나마 23곳의 장애인 화장실 중 사용 가능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내부가 좁거나(17곳), 공용(11곳)이거나, 잠겨있거나(1곳), 청소도구 및 물건이 놓여있어(1곳)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였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뿐 아니라 장애인등록,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신청,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신청, 보조기기 지원 신청 등을 해야하는 곳으로 장애인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다. 이 때문에 1998년 시행된 장애인편의증진법과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행정복지센터 곳곳은 조사결과와 같이 장애인에게는 높은 벽처럼 느껴지는 장소들이 많았다. 광주 북구 임동행정복지센터는 승강기가 없어 2층 다목적실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곳에서는 '찾아가는 건강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강사의 안내에 따라 물리(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계단을 오를 수 없는 장애인들은 참가할 수 없었다. 북구 문흥1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용 화장실은 쓰레기를 모아두고 참고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또 북구 문흥2동 행정복지센터는 진입로에 난간 손잡이가 없고 협소했으며 입구 점자 블록은 깨져있어 식별하기 어려웠다. 이곳 2층에 있는 100평 규모의 다용도실과 마을소통방에서는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노래교실, POP교실, 댄스스포츠

츠, 탁구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승강기가 없어 장애인들은 참여가 어려워 보였다. 화장실도 문제였다. 장애인 화장실 칸은 만들어졌지만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은 잠겨놓고 일반 문으로만 드나들 수 있게 했다. 센터측은 일반인이 변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오래전부터 잠겨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구 광천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 공용인데다 진입부터 쉽지 않았다. 출입문 손잡이는 휠체어 높이에 맞지 않게 높았고 쉽게 열리는 일반 화장실과 달리 성인 여성의 힘으로 쉽게 열지 못할 만큼 뻑뻑했다. 승강기가 없는 남구 방림2동 행정복지센터 1층은 경사도가 확보되지 않아 출입자체가 힘들었고 2층에 올라가기 위해 설치된 경사로는 너무 가팔라 휠체어를 이용하기에는 힘들어 보였다. 어느 곳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최일선 행정기관인 행정복지센터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다른 곳은 더 형편 없을 거라는 것이 장애인 단체의 설명이다. 모니터링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활동가들은 '행정복지센터는 찾기도 전에 막막함이 느껴지는 곳'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승일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업무를 보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지만 들어갈 수 있을지 걱정부터 든다"며 "정부 차원에서 BF(배리어프리·장애인 접근을 위해 장벽을 없애는 것) 인증 대상에 행정복지센터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진 기자 kd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